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22> 마군의 경계는 실체가 없다

공부를 하다보면 마(魔)가 좋은 경계나 나쁜 경계로 나타나서 방해를 놓기도 하는데, 이것을 마군(魔軍)이나 마구니 경계라고 부른다. '마'는 법어 māra를 소리 그대로 표현한 '마라'를 줄여서 말한 것인데, '생명을 빼앗다' '방해하다'의 뜻이다.

또 '악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들의 목숨과도 같은 부처님의 지혜'를 빼앗으려고 수행자의 공부를 방해하는 나쁜 귀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마음공부 하는 데에 있어 중생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는 경계는 모두 '마'라고 할 수 있다. 이 '마'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생겨나는 내마(內魔)와 바깥 경계에서 오는 장애인 외마(外魔)로 나누기도 한다. 내마는 '사마(死魔)' '음마' '번뇌마'를 말하고 외마는 '천마'를 말한다.

사마는 '죽음'이라는 마구니를 말한다. 땅과 물, 불, 바람이라는 네 가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사람의 몸은 그 인연이 흩어지면 죽게 된다. 죽게 되면 '수행자의 목숨과도 같은 부처님의 지혜(慧命)'를 뒤흔들 수 없으니, 이 '죽음'을 마구니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머지 음마, 번뇌마, 천마를 <선가귀감> 20장에서 설명한다.

起心 是天魔 不起心 是陰魔 或起或不起 是煩惱魔 然我法中 本無如是事

'천마'란 신봉이나 좋은 경계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음마'란 마음이 무거워져 가라앉게 되는 나쁜 경계며, '번뇌마'는 좋은 경계와 나쁜 경계가 번갈아 일어나면서 중생의 시비와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바른 법 가운데에는 본디 이런 마음들이 없다.

많은 경이나 논에서 천마와 음마와 번뇌

마를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이 같지는 않지만 그 뜻을 살펴 정리해 보겠다. 천마는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알면 제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온갖 험박과 유혹으로 공부를 방해한다. 무서운 용이나 범으로 나타나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늦은 밤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수행자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또 공양을 후하게 올리는 큰 시주로 수행자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수행자를 집적대어 화를 내게 하거나 근심거리를 잔

## 魔, 몸과 마음의 마음작용 실체 없어 관하면 경계 사라져

뜯어내려 주기도 한다. 전생에 지어놓은 잡스런 복덕으로 사탄 견해를 갖추게 된 천마는 부처님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음마는 덧없이 무너질 몸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수행자의 공부를 방해한다. '음(陰)'은 '오음(五陰)'을 줄여 말한 것이고 오음은 '오온(五蘊)'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므로 음마는 '오음마'나 '오온마'라 부를 수도 있다. '오(五)'는 다섯이고 '온(蘊)'은 쌓아놓았다는 뜻이니, '오온'은 다섯 가지 내용물을 모아놓은 무더기이다.

물질은 모아놓은 무더기인 색온(色蘊), 물질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작용을 모아놓은 수온(受蘊), 수온을 마음속에 떠올려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모습을 그려나가는 마음작용을 모아놓은 상온(想蘊), 상온(想蘊)을 통하여 어떤 알음알이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마음

작용을 모아놓은 행온(行蘊), 행온을 통하여 어떤 알음알이 판단을 내리는 마음작용을 모아놓은 식온(識)이 다섯 가지 내용물을 '오온'이라고 한다. 오온은 결국 중생의 몸과 알음알이 마음작용을 말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는데 방해되므로 마구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받는 중생의 고통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몸이 있으므로 받게 되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이 있고, 좋아하는데도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애별리고(愛別離苦)의 괴로움이 있으며, 원함과 증오심이 일어나기에 멀리하고 싶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만 하는 원증회고(怨憎會苦)의 고통이 있고, 마음대로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구불득고(求不得苦)의 괴로움이 있다.

이런 괴로움이 많아지는 것을 오음성고(五陰盛苦)라 한다. 이 몸과 알음알이 마음작용은 무상하여 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 중생은 있는 것이라고 집착해 오온에 구속되니, 이 오온이 마구니가 되어 온갖 괴로움이 다 여기에 모여든다.

번뇌마는 중생들이 갖고 있는 온갖 번뇌를 마구니로 표현한 것이다. 온갖 경계에 대하여 끊임 없이 시비하고 분별하며 사는 중생들은 끝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여러 경(經)과 논(論)에서 네 가지 마구니 경계를 없애는 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뜻을 간추려 말하겠다.

첫째 모든 법이 불생불멸임을 알면 사마(死魔)를 벗어날 수 있다. 둘째 교만한 마음을 없애면 천마가 끼어들 틈이 없다. 셋째 중생의 몸과 마음은 '허깨비' 같아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관하면 음마(陰魔)를 없앨 수 있다. 넷째 모든 시비와 분별이 공성(空性)인 줄 알면 번뇌마를 없앨 수 있다.

서산 스님은 마구니 경계에 대해서 "모든 경계에 무심한 것이 부처님의 도이고 알음알이로 분별하는 것은 마(魔)의 경계이다. 그러나 마군(魔軍)의 경계는 꿈같은 일로서 실체가 없는 것인데 수고롭게 더 따지고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원순 스님(승광사 인월암)

### 행복동 사람들

전생과 내생  
배종훈 (bjh4372@hanmail.net)

미자 엄마, 큰세 옆동네에 족집게 도사님이 있어.

그래? 우리 아들 요즘 장사가 안 돼 큰일인데 한 번 가볼까?

전생도 반죽고 다음 생도 반죽는데 하루 종일 손님이 가득하대네.

우리 같이 가봐요.

아이고 멀다. 저긴가 보네.

자식걱정, 건강걱정이 산더미로 쌓였구나~

아고, 역시 족집게 도사님이에요. 우리 아들 장사가 언제나 잘 풀릴까요?

전생이 궁금하면 자신의 현생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고 내생이 궁금하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영등한 곳에 가서 자신의 전생과 내생은 참으로 신기할 것이지요?

어머! 부적!

내 삶과 행동이 답이지요.

##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 산통

우리네 일상어로 녹아든 불교용어는 참으로 많습니다. '다 된 일인데 산통 댐다'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의도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 '산통'이란 말을 씁니다. 국어사전에도 '점치는 데 쓰는 산가지를 넣는 통'이라면서 '다 된 일을 이루지 못하게 뒤흔다' 또는 '다 되어 가는 일

이 뒤틀리다'는 부정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통 댐다'의 본래 의미는 '격렬한 논쟁'을 나타냅니다. 산통은 강원(講院)에서 사용했던 용어로 산(山)자지를 통(筒)에 넣은 것을 의미합니다. 강원에서 강의할 때와 의견을 피력하는 발의(發議) 순서를 정할 때 이용했던 물건입니다. 대중 가운데 소임자를 뽑고 대중의 의견을 정리할 때도 사용했던 용품이지요. 생과 사를 놓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스님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면, 격렬한 토론에 불이 붙었지요? 그렇게 되면, 산통을 집어던질만큼 커다란 논쟁이 벌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산통 댐다'는 말이 유행한 것입니다. 김철우 기자

##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7)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제2부 43강 지금까지 <금강경>이 한 이야기

<금강경> 6장에 들어서기까지 그동안 꽤 오래 걸고, 또 해칠이 심했다. 어디쯤 왔고,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 그동안 살핀 <금강경>을 다시 정리해 본다.

#### 1. 제1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 '법회가 열리게 된 경위'

- 붓다는 '위대한 거지들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다. 설법의 무대는 어느 날처럼 탁발을 다녀오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일어났다.

如是我聞, 一時, 佛在舍衛國, 祇樹給孤獨園, 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 爾時, 世尊, 食時, 着衣持鉢, 入舍衛大城, 乞食. 於其城中, 次第乞已, 還至本處, 飯食訖, 收衣鉢, 洗足已, 敷座而坐.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붓다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의 정사에, 1,250명의 많은 수행자와 함께 계시던 때였다. 밥 때가 되어, 붓다께서는 옷을 걸치고, 발우를 들고, 도시 가운데로 들어가, 집집을 돌며 탁발을 하셨다. 그런 후 거처로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웃고 그릇을 거둔 다음, 발을 씻고, 자리를 펴서 앉으셨다.

#### 2. 제2 선현기청분(善現起請分): '수보리,

#### 일어나 가르침을 청하다'

-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가 일어나 설법을 청했다. 그의 질문은 간절하다. '위대한 정신의 영웅이시여,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삶에 진정 필요한 기술(ars vitae, art of living)을 어떻게 습득해야 합니까.'

時長老須菩提, 在大衆中, 即從座起, 偏袒右肩, 右膝著地, 合掌恭敬, 而白佛言, 希有世尊, 如來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世尊善男子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 佛言, 善哉善哉, 須菩提, 如汝所說, 如來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汝今諦聽, 當為汝說. 善男子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如是住, 如是降伏其心. 唯然世尊, 願樂欲聞.

이때 수보리 어른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가사를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 공경하면서, 붓다께 사뢰었다. "희귀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예래(如來)께서는 보살들을 잘 지켜주고, 또 잘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여기 선남자 선여인이, 더 없이 높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그 마음을 제어해야 하겠습니까?"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수보리여, 훌륭하다. 네가 말한 대로, 예래는 보살들을 잘 지켜주고, 또한 잘 이끌어 주고 계신다. 너 이제 똑똑히 들어라. 너를 위해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더 없이 높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반드시 이렇게 다잡고, 이렇게 제어해야 하느니라." "그리 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기꺼이 들기를 원하옵나이다."

#### 3. 대승정중분(大乘正宗分): '이것이 대

있는 것과 없는 것, 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의식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 할 것 없이, 이 모든 생명을 '찌꺼기' 남김 없는 열반(無餘涅槃)에 들게 하여 구제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해도, 기실은 어느 생명 하나도 구원한 적이 없다. 왜냐?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나'라는 생각, '자아'라는 생각, '생명'이라는 생각,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復次, 須菩提, 菩薩於法, 應無所住, 行於布施, 所謂不住色布施, 不住聲香味觸法布施. 須菩提, 菩薩應如是布施, 不住於相. 何以故, 若菩薩, 不住相布施, 其福德, 不可思量. 須菩提, 於意云何, 東方虛空, 可思量不, 不也世尊. 須菩提, 南西北方, 四維, 上下虛空, 可思量不, 不也世尊. 須菩提, 菩薩無住相布施福德, 亦復如是, 不可思量. 須菩提, 菩薩但應如所教住.

됐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그럼 동서남북과 그 사이 사방, 그리고 상하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토대 없는 보시로 얻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야! 보살은 이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

#### "또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은, 어느 경우

이든 반드시 '토대' 없이 보시를 행해

## 어디 있는지 알려면 숲 벗어나야

#### 승이 가르친 핵심이다'

- 붓다의 대답은 차원이 하나 높다. 그는 계를 준수하, 가부좌 등 자세 갖추기, 혹은 심리적 대응치료 등을 말하지 않는다. "보살, 즉 정신의 영웅에게는 자의식이 없다! 그런 사람이 되라. 자신을 넘어서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그러나 유의해라. 남을 위한다는 턱없는 우월과 자만을 갖지 않도록."

佛告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降伏其心. 若有一切衆生之類, 若卵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 非無想, 我皆令入無餘涅槃而滅度之.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得滅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即非菩薩.

붓다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일렀다. "위대한 사람들(보살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킨다. 모든 중생들, 즉 앞에서 나는 것, 자궁에서 나는 것, 짙은 곳에서 생긴 것, 번이로 생긴 것, 그리고 신체가



#### 4. 제4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 '완전한 행동에는 토대가 없다!'

- 붓다는 이어 말한다. "무엇보다 완전한 행동(般若波羅密)을 배워야 한다. 이기적 관심에 휘둘리지 않고, 가식 없이 사는 법을. 삼륜청정(三輪清淨), 너희들은 세상에 공짜도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녀라. 보살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때 너는 넘쳐서 행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 한다. 이를테면, 형체에 토대를 두지 않고, 또 소리, 냄새, 맛, 접촉, 관념에도 토대를 두지 않는 보시를,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처럼 보시해야 하니, '자아'와 그 지적 관심에 휘둘리지 않고, 가식 없이 사는 법을. 삼륜청정(三輪清淨), 너희들은 세상에 공짜도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녀라. 보살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때 너는 넘쳐서 행복을 받게 될 것이다."

#### 5. 제5 여러실견분(如理實見分): '사태(理)를 환상 없이 있는 그대로 본다'

- 붓다는 덧붙인다. "무엇보다 환상을 갖지 마라. 자아의 환상은 물론이고, 더욱 붓다와 예래에 대한 환상조차 갖지 마라. 내 분별이 말하노니, '예래는 오지 않는다.' 기다리지 마라. 네가 기다리는 남은 남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일 뿐이다."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 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身相, 得見如來. 何以故, 如來所說身相, 即非身相. 佛告須菩提,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則見如來.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래를 육신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으로 예래를 뵈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래가 (깨달음의 증거로) 말씀하신 육신의 표징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붓다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그렇다!) 무릇 모든 표징은 다 실재하지 않는 환상이다. 만약, 일체의 표징이 순전히 의식이 구성한 이미지일 뿐임을 깨달으면, 그때 예래를 보게 되리라."

6. 이로써 두 번의 설법이 끝났다. 한번은 붓다의 탁발과 식사, 그리고 설거지(1장)로, 두 번째는 어떻게 일상을 영원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2-5장).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 번째 부연설법이 이어진다. ■한국학중앙연구원